

대체거래 정리란 무엇인가?

가계부(복식부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대체거래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특히 머니북과 같은 복식부기 가계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대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대체거래 정리를 잘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통계가 잘 잡힌 보고서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거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어렵더라도 대체거래에 대해 정리를 해 두시면 머니북 이용이 한결 부드럽고 또한 제대로 된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는 토대를 쌓게 되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거래란?]

가계부에 기록하는 거래는 들어오는(수입)것과 나가는(지출)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급여는 수입이고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고 지불한 5천원은 지출입니다.

그런데 거래 중에는 분명 돈이 들어왔는데 수입이 아니고 돈이 나갔는데도 지출이 아닌 거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10만원 찾았을 때에 내 주머니에 10만원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수입이 아니고 그 10만원을 적금을 불입하느라 적금통장에 입금을 해서 돈이 없어졌지만 지출은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빌렸던 돈을 갚아서 현금엔 없어졌지만 이 경우에도 지출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들어왔지만 수입이 아니고 돈이 나갔음에도 지출이 아닌 거래를 회계에서는 [대체거래]라고 하는데 머니북 역시 이러한 거래를 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는 은행에서 송금(이체)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체거래는 자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거래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자산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대체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아니고 반드시 상대계정이 존재하는 2개의 거래입니다. 즉 입금대체가 있으면 상대계정으로 출금대체가 존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금대체는 하나이고 출금대체는 여러 개일 수 있고 반대로 출금대체는 하나이고 입금대체는 여러 개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쪽의 금액은 항상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수입은 하나의 거래, 지출도 하나의 거래, 그러나 대체는 입금대체와 출금대체 2개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입금대체는 자산이 증가하고 출금대체는 자산이 감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대체에 대한 어려움이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대체에 대해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의 경우는 수입일까요?

- ◆ 10만원이 생겼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이다.
- ◆ 은행통장에서 10만원을 인출해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 ◆ 3년 전 친구에게 빌려줬던 10만원을 오늘 받았다.
- ◆ 어제 친구하고 술을 먹고 내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그 중 절반을 현금으로 받았다.
- ◆ 3년 동안 알뜰하게 절약해서 부은 적금이 만기가 되어 오늘 받았다.

다음의 경우는 지출일까요?

- ◆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줬다.
- ◆ 이번 달 켄돈으로 10만원을 계주에게 송금했다.
- ◆ 지난달에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 대금을 오늘 결제했다.
- ◆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
- ◆ 저축성 보험료로 10만원을 보험사에 송금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경우는 모두 수입이나 지출이 아닌 대체거래입니다. 거래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자산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왜 지출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밥을 먹고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에 이미 지출은 발생을 한 것이고 밥 값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빌려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부채가 남아있는 것이 되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부채가 줄어들면서 현금 또는 은행잔고가 줄어드는 대체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체와 대체의 의미 차이】 ← 은행업권.

*【이체】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과 다른 금융기관(지점)의 자기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체에는 ①현금이체와 ②계좌이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현금이체: ATM를 이용해서 상대방 은행계좌에 현금을 보내는 것

②계좌이체: 카드(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

*【대체】

은행계좌내에서 금액의 이동이라는 뜻으로 동일명의 통장에서 돈을 이동시키는 것

예) A씨가 본인 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같은 은행 본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로 돈을 이동시키는 것

(하지만 우체국 경우 약간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계좌이체”와 비슷한 말에 “계좌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좌대체】

신용카드 이용료나 공공요금 등을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해주는 서비스로 “자동이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체결제 : 현금 등을 주고 받고 하지 않고 계좌에서 처리를 하고 결제하는 것

ex>5월 5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이 경우, 5월6일(월)이 대체휴
어서 휴일이 된다.

·대체소득 : 연금, 고용보험급여 등 일하지 않고 받는 수입

매일경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의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증권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미리 특정계좌관리기관의 위탁하에 놓고 유가증권의 수수를 원화로 하지 않고 전표에 의하여 계좌간에 대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예탁원} 증권의 실물수불업무에 따르는 번잡성과 비용 및 위험을 제거하고 증권 ^{거래 방법} 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권 ^{반환 방법} 의 수도를 생략하고 주식거래의 결제 ^{반환 방법} 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설립되면서 1975년부터 유가증권 대결제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4년 4월 25일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법인격 전환으로 증권예탁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증권예탁원에 의해 대체결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상장주식의 90% 이상이 대체결제되고 있으며, 또한 채권은 특성상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95%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장외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계좌대체가 의무화되어 있다.

대체는 A증권사의 1번계좌와 2번계좌간의 자금의 이동을 대체라고 한다.

이체는 A증권사의 1번계좌에서 B증권사의 1번계좌로 자금의 이동을 이체라고 한다.

타사대체(입출고 관련) 업무는 A증권사의 1번계좌의 유가잔고를 B증권사 1번계좌로 이동할때도 사용된다.

대체는 '보통 바꾼다, 교체한다.'라고 표현해서 그런지, 타사대체의 경우 실제 유가잔고가 예탁원에 보관되어있어 그 소유주만 바꾸는 형태가 되어 타사이체가 아닌 타사대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